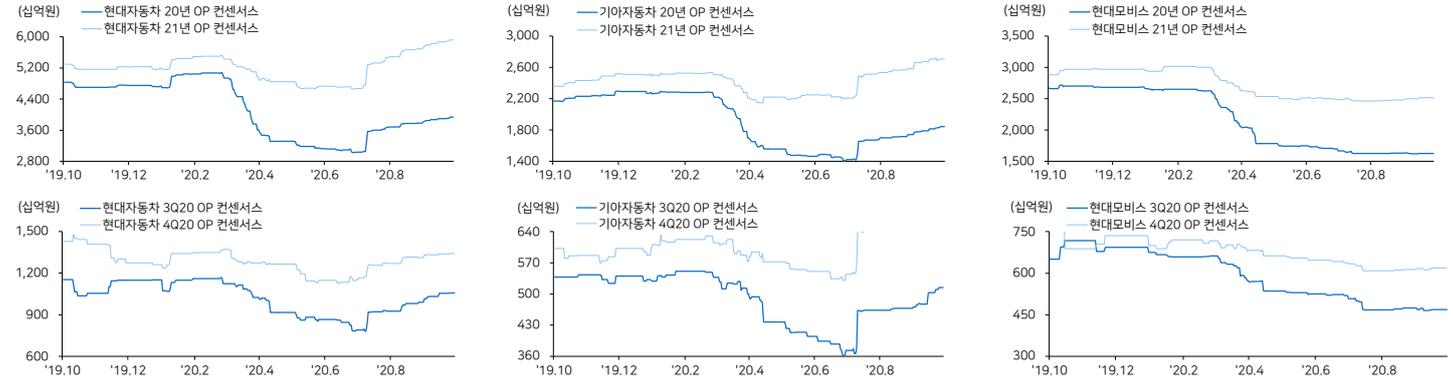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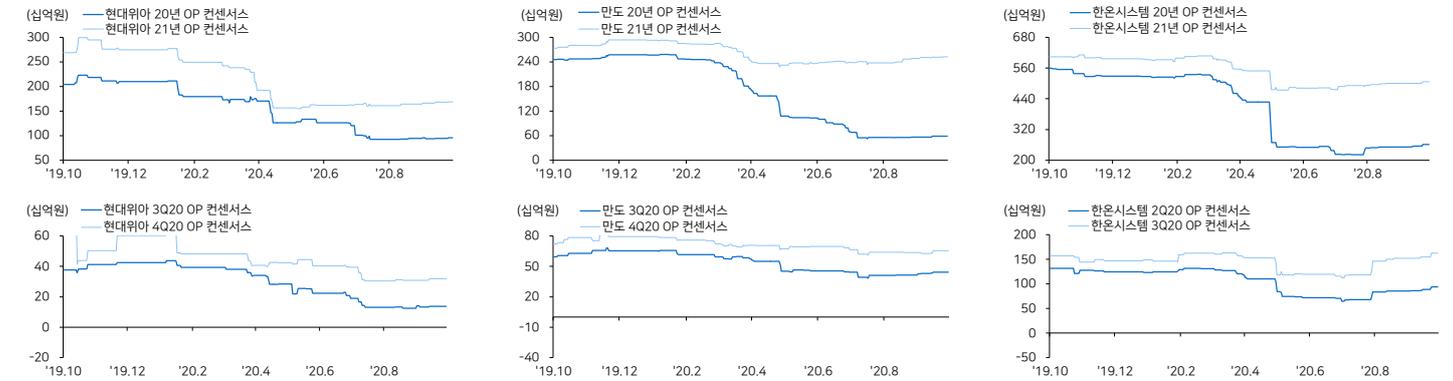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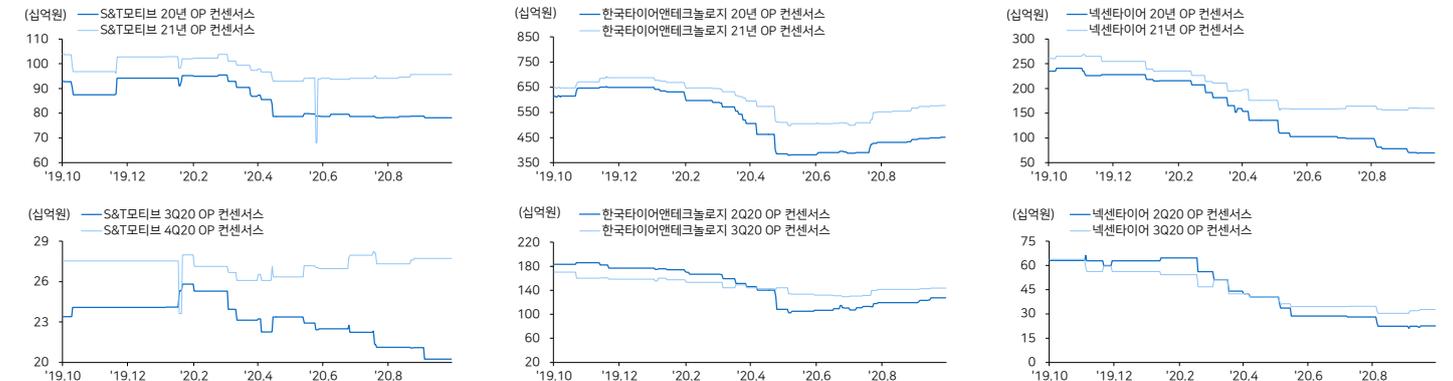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정의선 시대' 개막...격랑의 자동차업계 돌파할까 (MBC뉴스)

재계 2위인 현대차의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오늘 회장직에 오르면서 완전한 '3세 경영'에 들어 감. 자동차 산업이 격변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20년 만에 총수가 바뀐 현대차,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를 조준경 기자가 짚어봄.
<https://bit.ly/3Jh0hD>

다 계획이 있구나!...기아차 러시아 인종 종교차 사업 '생생' (더그투)

기아차의 러시아 인종 종교차 사업이 빠르게 커지고 있음. 현대·기아차가 국내 중고차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관심을 쫓.
<https://bit.ly/2HaqL3S>

정의선 현대차 회장, 전기차 화재 해결 앞장설까 (ZD넷코리아)

현대차그룹이 14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정의선 수석부회장을 그룹 회장으로 선임. 코나 전기차 화재 이슈로 현대차그룹 전기차 사업에 보완이 필요해졌고, 중고차 사업 진출에 따른 업계 우려도 불식 시켜야 하는 과제가 주어짐.
<https://bit.ly/2T1o1Sp>

해외서도 전기차 잇단 화재 이슈...전전긍긍하는 K배터리 (연합뉴스)

현대자동차에 이어 제네럴모터스(GM), 포드, BMW 등 해외 업체들의 전기차에서도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며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는 한국 업체들의 시름이 커짐.
<https://bit.ly/3nPGExG>

현대차*2030년까지 수소트럭 미국 1만2천대,중국 2만7천대 수출* (연합뉴스)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대형 수소전기트럭의 유럽·미국·중국에 대한 수출 계획을 구체화. 14일 현대차는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디지털 프리미엄'을 열고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의 향후 수출 로드맵을 발표.
<https://bit.ly/3IXht8L>

자동차 데이터 표준 산업부·현대차 '맞선'... 2021년 상반기 구축 (조선비즈)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 부처와 경찰청,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현대차가 모여 '자율 주행 자동차 데이터 표준화' 구축에 나섬. 자율차 데이터 표준화위는 자율차 데이터의 국가 표준안을 오는 2021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
<https://bit.ly/3IRfjJP>

미국 교통안전국, LG화학 배터리 탑재한 GM 볼트EV 화재사고 조사 (비즈니스포스트)

LG화학 전기차배터리가 탑재된 미국 GM의 전기차 볼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이 조사에 들어감.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은 2017~2020년 생산된 볼트EV 7만7842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함.
<https://bit.ly/2H2FQor>

아우디, 中 FAW와 손잡고 전기차 벤처 설립 (IT조선)

아우디가 중국 국영 자동차 그룹 FAW와 전기차 전문 벤처기업을 설립하기로 합의. 아우디는 신설 기업을 통해 중국 시장 판매 총 전기차 비중을 30% 이상 끌어올릴 계획.
<https://bit.ly/3IEHhJ8>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게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